

2026 . 07 . 21 - 08 . 29

미주나우 슈퍼 6주 플레이북

날짜가 아니라, 각 날짜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
7/17 기준 월가 컨센서스 · CME 확률 · 컨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

트리플 데이

7/30

금리 + GDP
+ 애플·아마존

엔비디아 실적

8/26

데이터센터
+92% 지속?

9월 인상 확률

44%

동결 51%
동전 던지기

| 들어가며 |

날짜를 외우지 말고, 질문을 외우세요

다음 6주는 올해 미국장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.

FOMC와 2분기 GDP와 애플·아마존 실적이 하루(7/30)에 겹치고,
호르무즈 유가 급등이 처음 찍히는 물가(8/12)가 나오고,
엔비디아 실적(8/26)과 워시 의장의 첫 잭슨홀(8/27~29)이 같은 주에 몰립니다.

이 자료는 일정표가 아닙니다. 각 이벤트마다

월가가 실제로 보고 있는 숫자 — CME 금리 확률, 애널리스트 컨센서스,
연준 나우캐스트 — 를 붙여, **그날 무엇이 나오면 좋은 것이고
무엇이 나오면 나쁜 것인지를** 미리 정해두는 자료입니다.

6주의 모든 이벤트는 결국 두 개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.

- ① 물가가 유가 쇼크를 견디는가 (8/12 CPI)
- ② 빅테크가 AI 지출을 유지하는가 (7월 말 실적 + 8/26 엔비디아)

이벤트는 점, 흐름은 선.

이 두 질문의 답이 나오는 순간이 6주의 분기점입니다.

CONTENTS

목차

01	6주 전체 지도 주차별 핵심 일정 + 단 하나의 질문	04
02	인과 체인 FOMC → 캐פק스 → CPI → 잭슨홀 → 엔비디아	05
03	7월 FOMC 동결 90% · 진짜 승부는 9월 (인상 44%)	06
04	7/30 트리플 데이 금리 + 2분기 GDP + 애플·아마존, 하루에	07
05	★ 캐팩스 \$725B 이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한 숫자	08
06	빅테크 실적 캘린더 6개 기업 컨센서스 + 관전포인트	09
07	★ 8/12 CPI 유가 쇼크가 처음 찍히는 물가	10
08	반도체 재채점 하이닉스 · 삼성 · 인텔 · 엔비디아	11
09	★ 잭슨홀 워시의 첫 무대 · 역사가 말하는 것	12
10	네 갈래 시나리오 물가 × 캐팩스 2×2 + 체크리스트	13
—	마치며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세요	14

CHAPTER 01 · 6주 지도

6주를 한눈에

7/20 주 구글·테슬라·하이닉스(7/22) · 인텔(7/23)

실적 시즌 개막 — 캐פק스 첫 답

7/27 주 ★ FOMC(7/28~29) · MS·메타(7/29) · 트리플 데이(7/30) · 삼성(7/30)

6주 중 최대 변동성 주간

8/3 주 샌디스크(8/5) · 7월 고용보고서(8/7)

고용 급랭 확인 여부 — 6월 +5.7만 쇼크

8/10 주 ★ 7월 CPI(8/12) · PPI(8/13) · 소매판매(8/14 예정)

유가 쇼크의 첫 물가 성적표

8/17 주 큰 일정 없는 주

숨 고르기 — 포지션 점검 구간

8/24 주 ★ 엔비디아(8/26) · 잭슨홀(8/27~29) · 7월 PCE(8/28 관행)

AI의 심판과 연준의 무대가 같은 주에

이 모든 일정이 묻는 단 하나의 질문

“AI 호황은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는가?”

캐פק스(7월 말)와 물가(8/12)가 답의 절반씩을 쥐고 있습니다.

확정 출처: Fed · BEA · BLS · TipRanks · KC연은 (2026-07-17) · 시각은 한국시간

CHAPTER 02 · 인과 체인

앞 이벤트가 뒤를 결정한다

7/30**FOMC — 워시의 문구**

'긴축 편향' 삽입 여부가 6주 전체의 금리 톤 결정

→ 매파 문구 = 8월 내내 금리 경계 모드

**7월 말****빅테크 캐펙스 답변**

구글·MS·메타·아마존이 \$725B 지출을 유지하는가

→ 유지 = 반도체 하방 방어 / 하향 = 조정 심화

**8/12****7월 CPI**

호르무즈 유가 급등의 첫 물가 반영

→ 서프라이즈 = 9월 인상 44%가 60%대로 점프

**8/26~29****엔비디아 + 잭슨홀**

AI 수요의 실체 확인 + 워시의 9월 예고편

→ 두 개가 같은 주 — 8월 말 변동성 극대화

CHAPTER 03 · 7월

7월은 동결, 승부는 9월

KEY DATES

7/28~29 FOMC 회의 (현지)

SEP·점도표 없음

7/30 03:00 ★ 금리 발표 + 워시 회견

성명서 문구가 전부

7월 동결 확률

90%

CME FedWatch 7/16

9월 인상 확률

44%

동결 51% — 동전 던지기

6월 점도표

9:9

18명 중 9명 연내 인상

현 기준금리 3.50~3.75%. 워시 의장은 “물가가 너무 높다 —

63개월째 목표를 넘긴 건 국민에 대한 세금”(7/14 의회 증언)이라며 인상 편향을 숨기지 않습니다.

[쉽게] 점도표(dot plot)

연준 위원 18명이 각자 걱정 금리를 점으로 찍은 표. 6월엔 정확히 9:9로 갈렸고, 워시 본인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

이 신호가 8월로 이어진다

7월엔 점도표가 없어 성명서 문구 한 줄이 전부 — ‘additional firming(추가 긴축)’ 계열 표현이 들어가면 잭슨홀까지 매파 베이스라인이 깔립니다.

CHAPTER 04 · 7월 30일

하루에 세 개가 검치는 날

KEY DATES

새벽 3시	★ 금리 발표 + 워시 기자회견	9월 방향 제시
밤 9시 30분	2분기 GDP 속보	GDPNow +1.3%
새벽 (7/31)	★ 애플 · 아마존 실적	중국 · AWS

애틀랜타 연은 GDPNow는 5월 3~4%대에서 7월 초 **+1.3%**까지 내려왔습니다 (1분기 확정 +2.1%). 금리는 못 내리는데 성장은 식는 조합 —
이날 GDP가 1%를 깨면 '긴축 속 둔화' 서사가 공식화됩니다.

같은 날 애플은 **중화권 +28.1% 반등**(4년 만의 최강)이 이어지는지,
아마존은 **AWS가 +32~35%**(컨센)로 가속하는지를 답합니다.

왜 이날이 6주의 최대 변동성 후보인가

금리(연준) · 성장(GDP) · 실적(빅테크)이 12시간 안에 정렬됩니다.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다음 날 지수가 크게 움직입니다 — 미리 포지션을 정하는 날이 아니라, 반응을 정해두는 날입니다.

출처: Fed · BEA(8:30 ET) · Atlanta Fed GDPNow(7/8) · TipRanks

CHAPTER 05 · 시즌의 뿌리

\$725B — 아무도 줄이지 않았다

빅테크 4사 · 2026년 AI 설비투자 합산

+77%

약 7,250억 달러 — 2025년 \$410B에서

	아마존	~\$200B	빅4 최대
	구글	~\$190B	\$175~185B에서 상향
	MS	~\$190B	이 중 \$25B는 부품가 상승분
	메타	\$125~145B	또 상향하면 주가엔 부담

1분기 실적(4월 말)에서 4사 전원이 이 숫자를 **유지하거나 상향**했습니다.

선행 신호도 같은 방향 — TSMC는 7/16 실적에서 서프라이즈와 함께 캐펙스를 올렸습니다.

이 숫자가 반도체의 생명줄인 이유

엔비디아·HBM의 매출은 결국 이 4사의 지출입니다. 이번 실적에서 한 곳이라도 '속도 조절'을 말하면 7월 반도체 조정이 정당화되고, 전원 유지면 조정은 **가격 재조정**으로 판명납니다.

출처: 각사 Q1 가이드스 · Tom's Hardware · Moody's (하이퍼스케일러 \$785B) · 2027년 \$1조 전망 (Goldman·CNBC)

CHAPTER 06 · 실적 캘린더

여섯개 기업, 두개의 질문

7/22



구글 — 매출 \$116.5B · EPS \$2.86
클라우드 +63% 유지 여부

7/22



테슬라 — EPS \$0.47~0.52 · 인도 +25% 확정
마진 개선 · 로보택시

7/29



MS — 매출 \$87.6B · EPS \$4.21
Azure +40% 방어

7/29



메타 — 매출 \$59.6B · EPS \$7.08
캐פק스 3연속 상향 여부

7/30



애플 — 매출 \$109~111B · EPS \$1.9 내외
중화권 +28% 지속

7/30



아마존 — 매출 ~\$196B · AWS +32~35%
AWS가 \$200B를 정당화하는가

여섯 실적은 결국 둘로 나뉩니다. **돈을 쓰는 쪽**(구글·MS·메타·아마존의 캐פק스)과
그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 쪽(클라우드·광고·아이폰).

쓰는 쪽이 유지되고 돌아오는 쪽이 가속하면 — AI 논쟁은 이번 시즌에서 강세 쪽으로
기웁니다.

[쉽게] 컨센서스

애널리스트 전망치의 평균. 주가는 실적의 절대값이 아니라 이 숫자와의 차이에 반응합니다. 표의
수치는 7/17 기준이며 발표 직전 소폭 바뀔 수 있습니다.

출처: TipRanks · Zacks · Yahoo Finance · LSEG (2026-07)

CHAPTER 07 · 8월

유가 쇼크가 처음 찍히는 물가

7월 헤드라인 CPI · 클리블랜드 연은 나우캐스트

2.72%

코어 2.85% · 6월 실제는 3.5% / 2.6%

6월 물가가 급락한 건 **에너지 -5.7%, 휘발유 -9.7%** 덕이었습니다.
그런데 7월엔 호르무즈 긴장으로 브렌트유가 \$84까지 반등(월간 +6.4%)했습니다.
그 상승분이 **처음 반영되는 물가**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.

[쉽게] 나우캐스트

클리블랜드 연은이 유가·환율 등 실시간 데이터로 추정하는 물가 예측치. 공식 컨센서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숫자입니다.

두 갈래 길

예상 하회 → 9월 인상 확률(44%) 후퇴, 안도 랠리

예상 상회 → '유가발 2차 인플레이' 공포 + 9월 인상 현실화 — **6주 중 최대 하방 리스크**

출처: BLS · Cleveland Fed · TradingEconomics (브렌트 \$84.63, 7/16)

CHAPTER 08 · 재채점

‘실적 좋아도 빠지는’ 논쟁의 판정

7/22



SK하이닉스

영업익 컨센 ~65조 — Rubin향 HBM4 물량 60~70% 확보

7/23



인텔

EPS 컨센 \$0.21 — 18A 첫 양산 · 14A 보류 리스크

7/30



삼성전자

잠정 영업익 89.4조 — DS·파운드리 세부가 7/30 공개

8/5



샌디스크

EPS 컨센 ~\$34 — NAND 공급부족 · AI 스토리지

8/26



★ 엔비디아

매출 가이드스 \$91B — 데이터센터 +92% 지속 여부

7월 내내 반도체는 좋은 실적에도 하락했습니다 — 시장이 **채점 기준**을
‘성장’에서 ‘가격 지속성’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. 그 논쟁의 결론이 이 5개 발표에서 납니다.

특히 엔비디아는 가이드스에 **중국 매출을 0으로 가정**해 뒀습니다.

라이선스가 풀리면 그대로 업사이드 — 서프라이즈의 씨앗이 이미 심겨 있습니다.

무엇을 보면 되는가

- ① HBM 평균판매가(ASP)가 꺾였는지 — 하이닉스 컨퍼런스콜
- ②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(직전 \$75.2B, +92%)의 증가율 — 이 둘이 ‘사이클이나 구조냐’를 가립니다.

출처: SK hynix IR · Samsung 잠정공시(7/7) · NVIDIA IR · TrendForce (2026-07)

CHAPTER 09 · 8월 말

워시의 첫 잭슨홀

JACKSON HOLE · 최근 3년 · 연설 주간 시장 반응

2023	“더 높이, 더 오래”	-0.69%
2024	“조정의 시간이 왔다”	+1.15%
2025	“정책 조정 시점” · 파월 마지막	+1.5%

올해 주제는 “**Financial Innovation**”(8/27~29, 캔자스시티 연은).

취임 후 **워시 의장의 첫 잭슨홀**입니다. 파월의 3년이 모두 비둘기·중립이었기에, 매파 톤이 나오면 그 자체로 반전이 됩니다.

역사도 경고합니다 — 2022년 파월의 8분짜리 매파 연설 뒤 S&P500은 한 달 만에 **약 -12%** 빠졌습니다.

침묵도 재료다

워시는 포워드가이던스(사전 예고) 자체를 거부하는 스타일입니다. 명시적 신호 없이 끝나면 — ‘함구’가 9월 FOMC(9/15~16)까지 불확실성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.

출처: Kansas City Fed · 시장 반응은 연설 주간 S&P500 (2022 사례는 약치)

CHAPTER 10 · 대응

네 갈래 길과 체크리스트

물가(8/12 CPI)와 캐פק스(7월 말 실적), 두 축이 6주의 방향을 정합니다.

물가↓ · 캐팩스 유지

베스트

금리 부담 완화 + AI 수요 확인 → 반등 국면

물가↑ · 캐팩스 하향

워스트

9월 인상 현실화 + 수요 둔화 → 조정 심화

물가↓ · 캐팩스 하향

혼조 A

금리는 우호, 실적이 발목 → 종목 차별화 장세

물가↑ · 캐팩스 유지

혼조 B

수요는 강한데 금리 역풍 → 변동성 장세

CHECKLIST · 이 네 개만 확인하세요

7/30 새벽

□ 성명서에 '추가 긴축' 계열 문구가 들어갔는가

7월 말

□ 빅4 캐팩스 — 하향을 말한 회사가 하나라도 있는가

8/12

□ CPI가 나우캐스트(2.72%)를 상회했는가

8/26

□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증가율이 +80%대를 지켰는가

원칙

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세요. 네 개의 답이 나올 때마다 위 사분면에서 자기 위치를 옮기면 됩니다 — 그게 이 플레이북의 사용법입니다.

| 마치며 |

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대응하는 곳

6주 뒤 이 자료의 숫자 일부는 틀려 있을 겁니다. 컨센서스는 움직이고, 확률은 매일 바뀝니다. 하지만 **질문은 바뀌지 않습니다** — 물가가 유가를 건디는가, 빅테크가 지출을 유지하는가.

각 이벤트가 끝날 때마다 13페이지 체크리스트에 답을 채워 넣으세요. 네 칸이 채워지는 순간, 다음 분기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.

**날씨는 달력이 알려주지만,
그날 무엇을 볼지는 준비한 사람만 압니다.**

본 자료는 무료 배포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모든 수치는 2026-07-17 기준 미국 원문 소스(Fed · CME · BLS · BEA · TipRanks · KC연은 등)에서 확인했으며, 컨센서스·확률은 발표 전까지 변동됩니다.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미주나우

@MIJUNOW